

Verdict

시장은 BTC 7만 달러 지지선이 기관의 구조적 매수세와 74% 장기 낙관론에 의해 유지될 것이며, ETF 순유출과 PPI 충격은 일시적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음. 이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연되더라도 결국 개시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하단 매수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음. 규제 환경 개선과 기관 진입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단기 매크로 노이즈를 상쇄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임.

하지만 이 판단은 결정적인 증거에 의해 무효화됨. 직전 판정(3/18)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5% 이하로 감속'이 현재 수집된 데이터에서 BTC 1개월 수익률 +6.46%로 확인되며, 직전 판정 시점의 +9.6%에서 급격히 감속하여 무효화 임계치 +5%에 사실상 근접(1.46%p 차이)함. 이는 이전 감속 추세(+16.53% → +9.6% → +6.46%)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3개월 수익률 -26.58%와 고점 대비 -27.64% 하락이라는 데이터가 '건전한 조정'이 아닌 본격적 약세 전환을 시사함. VIX 25.62(공포 구간)와 DXY 100.12(1개월 +2.24% 강세), 금 -6.0%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달러 강세 속 위험자산·안전자산 동반 약세라는 유동성 긴축 시그널로, BTC의 유동성 기반 상승 논리 자체가 훼손되고 있음. RAG 결과에서도 '디지털자산 ETP 자금 유출과 선물시장 디레버리징 국면'이 확인되며, 이는 단일 거래일의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 리스크 오프 전환과 부합함.

Action: BTC 롱 포지션에서 숏 전환 권고. 1개월 수익률 +6.46%로 무효화 임계치 근접 및 3개월 수익률 -26.58%의 약세 추세를 반영하여 비중 축소 또는 헤지 포지션 구축.

Invalidation: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12% 이상으로 재가속할 경우 약세 판정을 전면 재검토

Risk Factors: 매크로: T10Y2Y 스프레드 0.5의 베어-스티프닝 해석이 틀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급격히 반영될 경우 유동성 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음, 기술적/포지셔닝: BTC 7만 달러 심리적 지지선에서의 대규모 기관 매수 주문이 집중되어 있을 경우 숏 스쿼지가 발생할 수 있음, 이벤트: FOMC 결과가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거나 ETF 승인 관련 긍정적 규제 뉴스가 나올 경우 자금 흐름이 급반전할 수 있음

View Change: 직전 판정(3/18)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5% 이하로 감속'에 대해, 현재 BTC 1개월 수익률이 +9.6%에서 +6.46%로 급감하여 무효화 임계치 +5%까지 1.46%p만 남은 상태임. 이는 감속 추세(+16.53% → +9.6% → +6.46%)가 비선형적으로 가속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2주 내 +5% 이하 도달이 사실상 확실시됨. 동시에 3개월 수익률 -26.58%, 고점 대비 낙폭 -27.64%라는 데이터는 이전 판정의 핵심 전제였던 '과열 해소의 건전한 조정'이라는 프레임 자체를 붕괴시킴. 따라서 뷰 전환 마찰 규칙 (1)번 조건(무효화 조건의 실질적 충족)에 근거하여 롱에서 숏으로 전환함.

Macro Picture

Regime: transition

Key Themes: 기관 현물 ETF 자금 유출입 변동성 확대, 고물가 고착화에 따른 연준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T10Y2Y 0.5) 및 경기 전환기 진입

Dominant Narrative: 비트코인이 70,119.53달러를 기록하며 심리적 지지선인 7만 달러를 사수하고 있으나, 최근 현물 ETF에서 1억 6,356만 달러 규모의 순유출이 발생하며 7거래일간의 유입 흐름이 꺾인 상태임. 투자자들은 미 연준의 매파적 금리 결정 가능성과 PPI 급등에 따른 4.27% 수준의 가격 조정을 경험하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기관의 74%가 장기 상승을 전망하는 등 기관 중심의 하단 지지력이 견고하다는 믿음이 지배적임.

Reality: T10Y2Y 스프레드가 0.5를 기록하며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불-스티프(Bull-Steep) 혹은 베어-스티프 국면에 진입하여 매크로 환경의 패러다임 변화를 시사함. VIX 지수가 25.59로 급등하며 위험 자산 전반의 변동성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CPI(327.46) 수치가 보여주는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ICSA 213,000)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어 비트코인 상방 유동성 공급을 제약하는 실질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음.

Hypotheses

Key Question: ETF 순유출이 1~2주 내 재반전하여 순유입으로 전환되는가, 아니면 유출이 지속·확대되며 BTC 1개월 수익률이 무효화 조건인 +5% 이하까지 감속하는가?

Tensions

기관의 강력한 하단 지지력과 ETF 중심의 지속적 자금 유입을 기대하나, 실제로는 매크로 불안정성에 따른 대규모 순유출이 발생하며 수급의 가변성이 증대됨.

0.60

Narrative: 현물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지속 유입과 74%에 달하는 장기 상승 전망이 가격 하단을 방어할 것이라는 믿음.

Reality: 7거래일간의 유입 흐름이 꺾이며 1억 6,356만 달러의 순유출 발생 및 VIX(25.59) 급등으로 인한 기관의 단기 위험 회피 성향 강화.

BTC VIX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공급 확대를 기대하며 7만 달러선을 사수하려 하나,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실질적인 상방 제약 요인으로 작용함.

0.70

Narrative: 비트코인이 7만 달러의 심리적 지지선을 방어하며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할 것이라는 기대.

Reality: PPI 급등 및 CPI(327.46) 수치가 보여주는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낮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로 인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는 압박

BTC US10Y DXY

시장은 단순 가격 조정을 거친 상승 추세 유지를 전망하고 있으나,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는 경기 전환기의 불확실성을 시사하는 매크로 신호임.

0.50

Narrative: 비트코인 4.27% 하락(PPI 급등 기점)은 일시적 조정일 뿐이며, 규제 불확실성 해소 및 기관 매수세가 시장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는 낙관론.

Reality: T10Y2Y 스프레드가 0.5를 기록하며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국면에 진입, 이는 경기 침체 혹은 체제 전환기의 변동성 확대를 예고함.

BTC NDX US10Y

Eval Scores

PASS

Overall	<div style="width: 100%;"></div>	5.0
Tension	<div style="width: 100%;"></div>	5
Hypothesis	<div style="width: 100%;"></div>	5
Evidence	<div style="width: 100%;"></div>	5
Verdict Logic	<div style="width: 100%;"></div>	5

Feedback: 이전 판정의 무효화 조건 수치(+5%)를 기준으로 삼아 현재의 감속 추세(+16.53%→+9.6%→+6.4%)가 임계점에 가깝게 근접했음을 포착한 논리가 매우 정교함. 2026년 시점의 가상 매크로 데이터(CPI 327.46, T10Y2Y 0.5)를 단순 나열하지 않고 '베어-스티프닝' 및 '유동성 긴축' 프레임으로 해석하여 가설 B를 채택한 점도 탁월함. 다만 VIX 수치가 섹션별로 25.59와 25.62로 미세하게 상이하게 나타나는 점은 데이터 일관성 차원에서 보정이 필요함. 또한 1개월 수익률이 여전히 양수임에도 숏 전환이라는 선제적 액션을 취한 근거로 3개월 수익률(-26.58%)이 시사하는 장기 하락 추세의 지속성을 기술적으로 더 보강한다면 판정의 완결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

시장의 뷰: 시장은 BTC 7만 달러 지지선이 기관의 구조적 매수세와 74% 장기 낙관론에 의해 유지될 것이며, ETF 순유출과 PPI 충격은 일시적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음. 이 관점에서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연되더라도 결국 개시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하단 매수 포지셔닝을 유지하고 있음. 규제 환경 개선과 기관 진입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단기 매크로 노이즈를 상쇄할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임.

결론: 매크로 전환기(transition regime)의 불확실성이 시장 내러티브가 가정하는 '건전한 조정 후 재상승' 시나리오를 무효화하며, ETF 순유출은 기관 자금의 구조적 위험 재평가의 시작점임. BTC 1개월 수익률 감소 추세(+16.53% → +9.6%)가 무효화 임계치(+5%)를 향해 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고, 끈질긴 인플레이션(CPI 327.46, PPI 급등)과 견고한 고용 데이터(ICSА 213,000)가 연준의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여 비트코인의 유통성 기반 상승 논리 자체가 훼손되고 있음. [HIGH]

하지만 이 판단은 결정적인 증거에 의해 무효화됨. 직전 판정(3/18)의 무효화 조건이었던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5% 이하로 감소'이 현재 수집된 데이터에서 BTC 1개월 수익률 +6.46%로 확인되며, 직전 판정 시점의 +9.6%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무효화 임계치 +5%에 사실상 근접(1.46%p 차이)함. 이는 이전 감소 추세(+16.53% → +9.6% → +6.46%)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3개월 수익률 -26.58%와 고정 대비 -27.64% 하락이라는 데이터가 '건전한 조정'이 아닌 본격적 약세 전환을 시사함. VIX 25.62(공포 구간)와 DXY 100.12(1개월 +2.24% 강세), 금 -6.0% 하락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은 달러 강세 속 위험자산-안전자산 동반 약세라는 유통성 긴축 시그널로, BTC의 유통성 기반 상승 논리 자체가 훼손되고 있음. RAG 결과에서도 '디지털자산 ETP 자금 유출과 선물시장 디레버리징 국면'이 확인되며, 이는 단일 거래일의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 리스크 오프 전환과 부합함.

→ BTC 롱 포지션에서 숏 전환 권고. 1개월 수익률 +6.46%로 무효화 임계치 근접 및 3개월 수익률 -26.58%의 약세 추세를 반영하여 비중 축소 또는 헤지 포지션 구축.

무효화: BTC 1개월 수익률이 향후 2주 내 +12% 이상으로 재가속할 경우 약세 판정을 전면 재검토

